

여러분

이번에는 8 월에 개최되는 ‘가나자와 아카펠라 타운 2010’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는 8월 21일(토)에 개최되는 ‘가나자와 아카펠라 타운’은 가나자와에서는 처음으로 열리는 행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아카펠라를’이라는 테마로 일본 전국에서 전체 약 400 명의 아카펠라 그룹이 모여, 가나자와 시내를 스테이지로 하루종일 여러 곳에서 아카펠라를 들려 주는 이벤트입니다.

http://www.kanazawa-kankoukyoukai.gr.jp/feature_acappella2010/

창의도시 가나자와는 에도시대에 ‘가나자와 스바야시(素囃子)’라는 호가쿠(邦楽)와 무용의 일부 악기만으로 연주하는 매우 특색있는 전통예능과 ‘가가호쇼(加賀宝生)’라는 노가쿠(能楽)가 태어나 지금 시대에도 이러한 것들이 남아있는 도시입니다.

예전에는 ‘하늘에서 우타이(노가쿠의 가사)가 내려온다.’고 불릴 정도로 목수나 정원수 장인이 흥얼거리는 등 노가쿠가 대중에게 널리 침투했지만, 이날 하루는 가나자와의 역사적인 거리에 아카펠라 하모니가 울려 퍼지는 하루가 됩니다.

창의도시 가나자와는 지금까지도 ‘오케스트라 앙상블 가나자와’의 활동, 프랑스 낭트시와 제휴해서 열리는 ‘라 폴 줄네’, 작년부터 개최된 ‘가나자와 재즈 스트리트’ 등 음악에 대단히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악 이벤트는 거리를 활성화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이 다양한 문화를 가까이하는 귀중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에 뿌리내린 전통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중시하면서 아카펠라 타운과 같은 새로운 전략으로 문화를 자극하고, 시민 생활을 풍요롭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더없는 건승과 활약을 기원합니다.

일본 가나자와시 창의도시추진 담당

(가나자와 스바야시)

